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사 아래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경제]

- Bloomberg: 미 기업 심리 수년 만에 최고치
- FinanceYahoo: BofA “내년에 미 경제 견조한 모습 보인다”
- Bloomberg: 연준 관리들, 12월 금리 결정에 여지 남겨둬

[미국 금융]

- WSJ: 투자자들, 12월 금리 인하 베팅 높여
- FinanceYahoo: 새로운 글로벌 결제 시스템과 트럼프의 관세 위협

[한국 계엄령]

- CNBC: 윤 대통령의 비상 계엄령 선포로 달러 대비 원화 추락

[트럼프 행정부]

- Bloomberg: 유럽중앙은행 관계자 “미 관세는 성장과 인플레이 유발”
- CNNBusiness: 트럼프 “일본의 US Steel 인수 막겠다”

[주택]

- WSJ: 관세와 추방 추진, 미 건설 업계에 타격 예상

[미중 경제]

- FinanceYahoo: 중국, 주요 광물 미국 수출 금지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 WSJ: 미 근로자들, “직장에 갇혀 있다”고 느낀다
- Bloomberg: 나이키와 풋락커, 전시회 파트너십 체결
- Bloomberg: 낫산이 구식 모델이 빠져 있는 동안 고객들은 떠나간다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 정보

[미국 경제]

Bloomberg: Trump’s Election Powers US Business Sentiment to Multi-Year High

미 기업 심리 수년 만에 최고치

- 대선 이후의 여러 가지 조사 결과 미 기업들은 향후에 친기업적인 정책과 규제 완화를 기대하면서 향후 비즈니스 전망에 더 긍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연준 은행들의 관련 조사 결과도 이와 같다.
- 또한 강한 달러와 증시 활력, 비트코인 급등 등의 낙관적인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월스트리트 이코노미스트들의 트럼프 관세 위협에 따른 성장 저하 예상과 반대되는 상황이다.
- 최근 ISM 조사 결과는 제조 분야가 안정화되고 있고 내년 초에는 확장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1월 뉴욕 제조 활동 지수도 지난 2020년 6월 이래 가장 크게 상승했다.

- 필라 연준의 제조업체 조사에서는 비즈니스 활동과 주문이 지난 2021년 중반 이래 최고치로 상승했다. 캔자스 시티 연준의 자본 지출에 대한 향후 6개월 전망도 지난 2022년 이래 가장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Bloomberg 기사

FinanceYahoo: US economy poised for 'solid' growth in 2025 because America 'doesn't import recessions': BofA BofA “내년에 미 경제 견조한 모습 보인다”

- BofA 이코노미스트들은 내년에 미 경제가 연율로 2.4% 성장세를 보여 현재 전망치 2%보다 높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 트럼프 경제정책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미 경제는 유연성 덕분에 힘든 상황을 잘 극복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다.
- 미국은 수입이 수출보다 더 많은 상황에서 관세 위협을 보이는 가운데 잠재적인 무역전쟁 여파를 덜 받게 되리라는 것이다.
- 소비자 신뢰지수가 지난 18개월 이래 최고치이고, 최근 미 성장 추세도 견조하며, 소매 판매도 높고, 실업률도 4% 언저리에 있다.

FinanceYahoo 기사

Bloomberg: Fed Officials Keep Options Open for December Rate Decision 연준 관리들, 12월 금리 결정에 여지 남겨둬

- 연준 관리 3명은 내년에 금리를 계속 인하할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으나 이달 12월에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분명한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 연준 이사 Christopher Waller는 오는 17일부터 있을 양일간 회의에서 금리 인하 쪽으로 투표할 예정이지만, 회의 전 데이터로 인해 금리 유지 입장을 보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 뉴욕 연준 총재와 애틀랜타 연준 총재는 경제가 여전히 견조하고 인플레이가 연준 목표 쪽으로 내려가고 있다고 말했지만, 12월에 금리 인하를 선호하는 입장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
- 뉴욕 연준 총재는 과거를 보면 전망이 불확실하다면서 정책의 방향은 데이터에 달렸다고 말했다.
- 애틀랜타 연준 총재는 12월 금리 결정에 대해 데이터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Bloomberg 기사

[미국 금융]**WSJ: Investors Raise Bets on December Rate Cut**
투자자들, 12월 금리 인하 베팅 높여

- 연준 이사 Christopher Waller가 12월 금리 인하 쪽을 선호하겠다고 말한 후에 투자자들은 연준이 12월에도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베팅을 늘리고 있다.
- 연방 기금 금리(Funds-fund futures)는 12월에 0.25% 인상 가능성을 1주일 전의 59%에서 74%로 올렸다. 이렇게 될 경우 올해 3번째 금리 인하이며, 올해 들어 총 1% 포인트 금리가 인하되는 것이다.
- 한편 한국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후 뉴욕증시에 상장된 한국 기업들의 주식은 추락 중이다.

WSJ 기사

FinanceYahoo: How an upstart global payment system led to Trump's latest tariff threat
새로운 글로벌 결제 시스템과 트럼프의 관세 위협

- 트럼프 당선인은 달러 사용을 회피하려는 국가들에 대해 100% 감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다. 이는 특히 BRICS와 그 국가들의 새로운 지불 시스템이 브릭스 페이를 겨냥하고 있다.
- 브릭스 페이는 SWIFT와 같은 달러 중심의 네트워크에 대한 대안으로 달러 사용 없이 거래하는 블록체인 거래 시스템이다.
- 이는 글로벌 결제에서 달러 지배력을 위협하며 달러 약세를 강화할 수 있다고 일부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다.
- 트럼프의 입장은 달러의 글로벌 기축통화 지위를 제한하려는 새로운 통화 시스템을 막으려는 조치이다.

FinanceYahoo 기사

[한국 계엄령]**CNBC: South Korean won falls sharply against the U.S. dollar after president declares state of emergency**
윤 대통령의 비상 계엄령 선포로 달러 대비 원화 추락

-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 계엄령을 선포하면서 국회를 통제하고 국가를 위기로 치닫게 하는 야당을 비난했다.
- 달러는 원화 대비 2.7% 상승한 달러당 1,434.57원을 기록 중이다. 원화는 계엄령 소식에 달러 대비 2년 이내 최저치를 기록 중이다.

- 한편 국회는계엄령 발표 2시간 여 이후에 계엄령 해제를 결의했다.

CNBC 기사

[트럼프 행정부]

Bloomberg: US Tariffs Would Hit Growth and Inflation, ECB's Cipollone Says

유럽중앙은행 관계자 “미 관세는 성장과 인플레이 유발”

- 미국의 높은 관세 정책이 실시되면 유로존에 경제 성장과 인플레이가 악화 될 것이라고 유럽중앙은행 위원회의 Piero Cipollone는 말했다.
- 그는 “해외 수요가 줄고 유럽 국내 시장에 경쟁이 커질 것”이라면서 성장 저하와 기업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 또한 “미국의 높은 오일 생산과 중국에 대한 관세로 인해 아마도 유가가 내려갈 수 있을 것이다. 유가 하락과 중국산 제품이 유럽으로 향할 가능성 때문에 미 금리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 압력이 상쇄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Bloomebrg 기사

CNNBusiness: Trump again vows to block Japanese firm's controversial takeover of US Steel

트럼프 “일본의 US Steel 인수 막겠다”

- 트럼프 당선인이 일본 기업의 ‘US 스틸 150억 달러 인수 계획’을 막겠다고 말했다. 미국 철강 노조(United Steelworkers Union)는 오늘 화요일 트럼프의 인수 반대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 지난 9월, 일본제철이 US 스틸을 인수하려고 했지만, 당시 대통령 선거 후보였던 트럼프와 해리스 모두 정치적 반대를 선언했었다. 미국 기업과 관련된 일정 규모 이상의 모든 거래를 검토하는 미국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몇 달 동안 US 스틸 인수를 검토했었다.
- 지난 9월, US 스틸은 일본제철의 투자 없이는 근로자를 해고하고 공장을 폐쇄해야 한다고 말했었다.

CNNBusiness 기사

[주택]

WSJ: Construction Industry Braces for One-Two Punch: Tariffs and Deportations

관세와 추방 추진, 미 건설 업계에 타격 예상

- 트럼프 당선인은 규제를 완화하고 더 많은 건축을 허용해 건설 산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트럼프 당선인의 불법 이민자 추방과 새로운

관세 공약이 건설 업계에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 하버드 주택 공동 연구 센터에 따르면 텍사스, 캘리포니아, 뉴저지, 컬럼비아 건설업 근로자의 절반 이상이 이민자이다. Few Research Center에 따르면 미국 전체 노동력 중 6.5%가 불법 이민자이고, 건설업의 경우 13%의 노동자가 불법 이민자이다.
- 불법 이민자 추방이 이뤄질 경우 노동력이 부족해지고, 일부 직종의 임금 비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 또한 멕시코와 캐나다에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경우 건축 자재 비용이 상승할 수 있다. 전미 주택 건축업자 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Home Builders)에 따르면 전체 주택 건축 자재 중 약 7.3%가 수입산이다.
- 건물 골조에 사용되는 칩엽수 목재는 주로 캐나다에서 수입된다. 철강도 대부분 캐나다에서 수입한다. '경제 복잡성 관측소'(Observatory of Economic Complexity)에 따르면 2022년 미국이 수입한 430억 달러 규모의 수입 철강 중 약 4분의 1이 캐나다산이었다.

WSJ 기사

[미중 경제]

FinanceYahoo: China bans export of key minerals to U.S. as trade frictions escalate

중국, 주요 광물 미국 수출 금지

- 오늘 화요일, 중국이 갈륨, 게르마늄, 안티몬 관련 품목의 대미 수출을 금지했다. 미국이 최근 중국에 대한 반도체 규제를 추가한 지 하루 만에 이뤄진 조치다.
- 해당 광물들은 군사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 갈륨과 게르마늄은 반도체에도 사용된다. 작년 중국은 전 세계 안티몬 채굴량의 48%를 차지했다. 컨설팅사 Project Blue에 따르면 올해 중국은 정제 게르마늄 생산의 59.2%를, 정제 갈륨 생산의 98.8%를 차지했다.
- 정보 제공업체 Argus에 따르면 Rotterdam에서 정제 안티몬(antimony trioxide)의 가격이 올해 초보다 228% 급등해 11월 28일 기준 톤당 3만9천 달러를 기록했다.
- 중국 글로벌 광업 협회(Global Mining Association of China) 회장 Peter Arkell은 “중국의 광물 규제 전략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승자가 없는 무역 전쟁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FinanceYahoo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WSJ: More Workers Feel Stuck on the Job 미 근로자들, “직장에 갇혀 있다”고 느낀다

- 미국 여론 조사 회사 Gallup의 새로운 데이터에 따르면, 화이트칼라 직종의 채용이 둔화되고 있는데, 새로운 일을 찾으려는 근로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11월 실시된 설문조사에서 2만 명의 미국 근로자 중 절반 이상이 새로운 직장을 찾고 있다고 응답했다.
- Gallup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직업 만족도가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더 이상 발전할 수 없고, 임금 인상과 승진의 기회가 없다고 느끼고 있다. 비용 절감 조치와 사무실 근무도 불만을 키우고 있다.
- 근로자가 직장에 갇혀 있다고 느끼면 생산성이 저하될 수 있다. 직장 컨설턴트인 Jennifer Moss는 근로자들이 직장에 갇혀 있다고 느끼는 이유는 과도한 업무와 직장에서 목적과 의미를 찾지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WSJ 기사

Bloomberg: Nike and Foot Locker Partner on ‘Home Court’ Displays to Rebuild Partnership 나이키와 풋락커, 전시회 파트너십 체결

- 나이키와 풋락커가 오랜 파트너 관계 회복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홈 농구 코트 구역’을 전 세계 매장에 확대할 계획이다.
- 풋락커는 수직 점프에서 운동화 성능을 테스트할 수 있는 디지털 벽과 피팅(Fitting)에 도움이 되는 3D 스캐닝 기술을 갖춘 멀티 브랜드 구역을 2026년까지 전 세계 100개 매장에 도입할 예정이다. 지난 8월, 뉴욕 플래그십 매장에서 해당 구역이 처음으로 추가됐다.
- 나이키 전 CEO John Donahoe는 수백 개 소매업체와 제휴를 종료하거나 축소했다. 그 결과 풋락커 전체 구매의 약 75%를 차지하던 나이키 제품이 2022년 60%까지 떨어졌었다. 올해 초, 나이키는 이를 실수로 인정하고 관계 회복을 위한 재투자를 시작했다.

Bloomberg 기사

Bloomberg: Nissan Is Awash in Outdated Models as Car Buyers Look Elsewhere 닛산이 구식 모델이 빠져 있는 동안 고객들은 떠나간다

- 일본 내 닛산 자동차의 구매 대기 시간이 다른 브랜드에 비해 훨씬 짧아졌다. 이는 고객 수요 약화를 뜻하는 위험 신호이다. 닛산이 구식 모델에 빠져 있고, 인기 있는 하이브리드 모델이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다.
- Macquarie Securities Korea의 분석가 James Hong은 “브랜드가 약화되고 있다. 하이브리드 모델 부족을 비롯해 변화하는 상황에 회사의 대응이 매

우 느렸다. 제품 출시 시기를 집중시키고 모델 수명을 길게 잡는 닛산의 경향 때문에 딜러는 손해를 보고 고객은 비싼 가격을 지불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 닛산 CEO Uchida Makoto는 미국과 중국의 판매 부진으로 11월 초 연간 수익 예상 전망치를 70% 낮추고, 9천 명의 일자리를 해고하고, 생산 능력을 5분의 1로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닛산은 1월부터 10월까지 일본에서 7.4%, 중국에서 12%, 미국에서 11% 생산량이 감소했다.

Bloomberg 기사

[보고서]

뉴욕증시, 기술주 랠리에 S&P500·나스닥 신고가...나스닥 1%↑

2월의 첫 거래일인 2일(현지시간) 뉴욕증시가 대형 기술주 중심으로 강세를 보이며 주요 주가지수가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날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28.65포인트(-0.29%) 내린 44,782.00에 마감했다.

하지만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14.77포인트(0.24%) 오른 6,047.15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185.78포인트(0.97%) 오른 19,403.95에 각각 거래를 마쳤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Suite 410 | New York, NY 10022 US

[Unsubscribe](#) | [Constant Contact Data Notice](#)